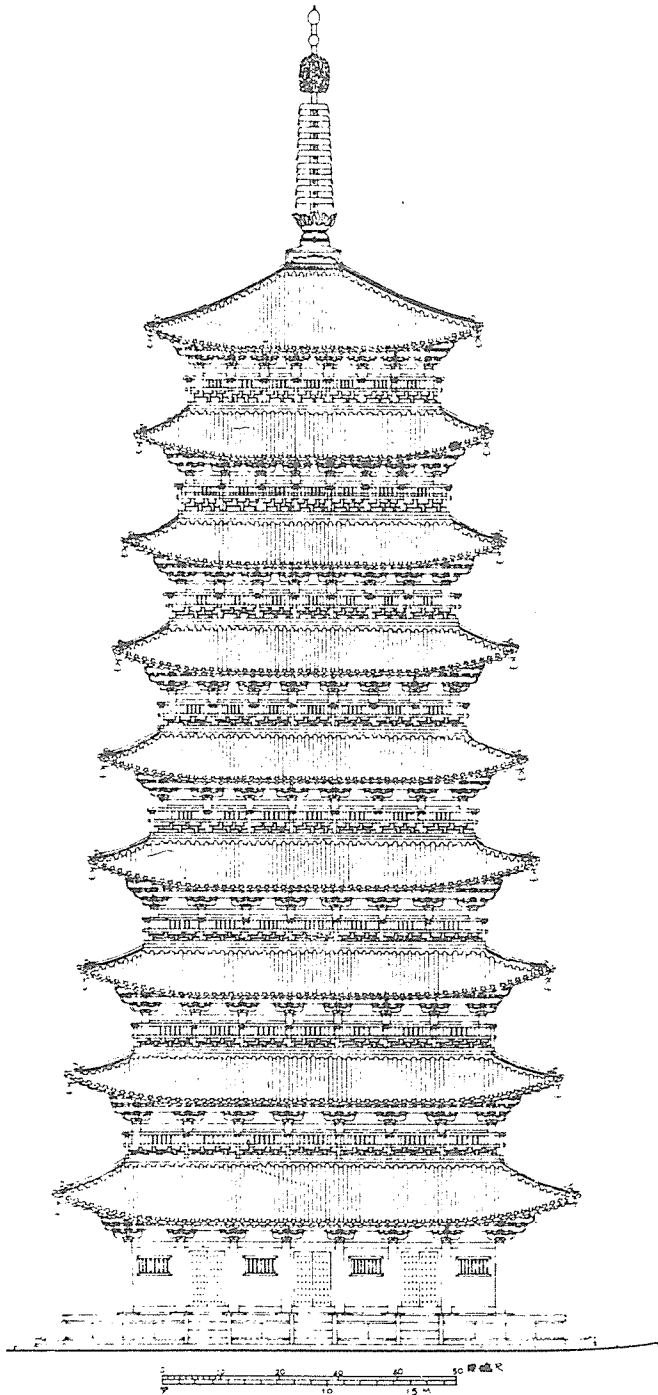


# 傳統建築의 遺産

金 東 賢

(文化財研究所 / 保存科學研究室長)



皇龍寺 9층 木塔 추정 復元圖

우리 民族의 建築文化는 新石器時代(B. C 4000~B. C 600)의 堅穴住居(움집)로부터 시작하여 靑銅器時代(B. C 600~紀元), 原三國時代, 三國時代를 거치는 동안 他民族과의 文化交流과 生活自體의 多變化로 점차 技術이 혁신되고 建築材料의 變換에 의 해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建築이란 어느 民族, 어느 國家이 건 그 建築이 놓여지는 地勢와 氣候,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產出되는 材料 등의 自然的 조건과 人文的인 政治·經濟·社會·宗教的 流動條件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마련이며 더욱이 그 民族의 풍습·신앙·취미 등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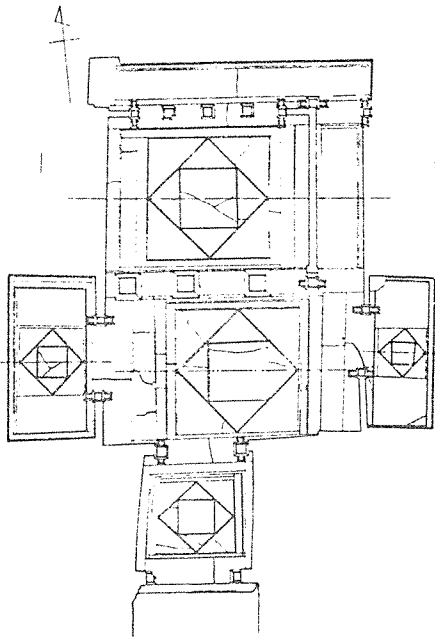
또한 建築文化는 다른 文化의 요소 들처럼 隣接한 다른 民族의 影響을 받거나 影響을 주면서 서로간의 連繫性을 갖고 同質의 文化要素 현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地形學的 조건 때문에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北方民族의 文化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으면서 발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文化에서 받아들여진 內容과 要素는 不知不識 間에 우리 環境과 生活風習·嗜好 등의 터전 위에 우리 마음과 피부에 적 응될 수 있는 곳으로 소화시켜져 造形으로 表出되었다. 이와같은 현상은 비단 建築文化에 만 나타난 현상이 아 니었고 彫刻·繪畫·工藝 등의 美術 분야에도 나타나고 있어 우리 民族固 有의 美的 의식을 뚜렷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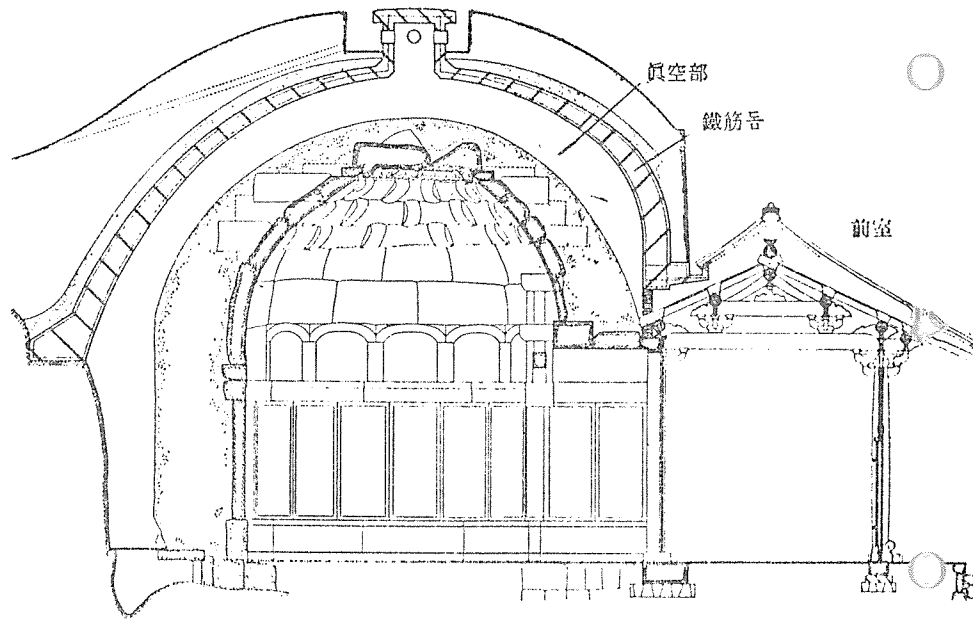
그러나 民族固 有의 美적 의식은 時 間性과 空間性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 성을 나타냈으며, 그 特徵的 요소는 한 분야의 造形美術에 만 국한되지 아 고 전반적인 文化遺産에 반영되었다.

우리 建築文化의 역사적 흐름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의 본격적인 建築 活動時期는 B. C 108년 이후 漢四郡이 北韓땅에 설치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아직 三國이 王權을 확립하지 못하고 部族國家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시기여서 中國 大陸의 漢文化의 影響을 받아들여 模 倣的 건축 活動이 이루어진 때라고 생 각할 수 있다.

이 시기의 漢族文化는 이 시기 이 전의 우리 固有의 建築文化를 中國型 으로 크게 轉換시킨 계기가 되었으며,



冬壽墓 평면도



석굴암 단면도

이 자극제적 영향은 후일의 建築文化 창조에 커다란 原動力이 되었다. 이후 漢四郡이 高句麗에 滅亡되고 A. D 4 世紀에 들어서서 高句麗는 王權이 확립되어 國家다운 國家로서 體制를 정비하였고 특히 小獸林王 2년(372)에는 前秦으로부터 佛敎를 받아들여 다시한번 建築活動上 큰 變革期를 맞게 되었다. 그 구체적인 예는 <三國史記>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375년 高句麗땅에 伊弗蘭寺와 肖門寺가 세워지고 廣開土大王 2년(392)에는 평양에 아홉개의 寺刹이 創建되고, 연이어 많은 佛事活動이 전개되었음을 통해 당시의 建築活動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南韓땅의 百濟나 新羅에서도 高句麗에 뒤이어 佛敎를 받아들여 佛事活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韓半島 전역은 유사 이래 가장 활발한 建築活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와같은 宗教的 건축활동은 建築技術의 숙련도 향상과 建築經濟의 발전에 크나큰 推進力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 바탕 위에 기타 建築의 建設과 建築材 개발에도 공헌한 바 컸으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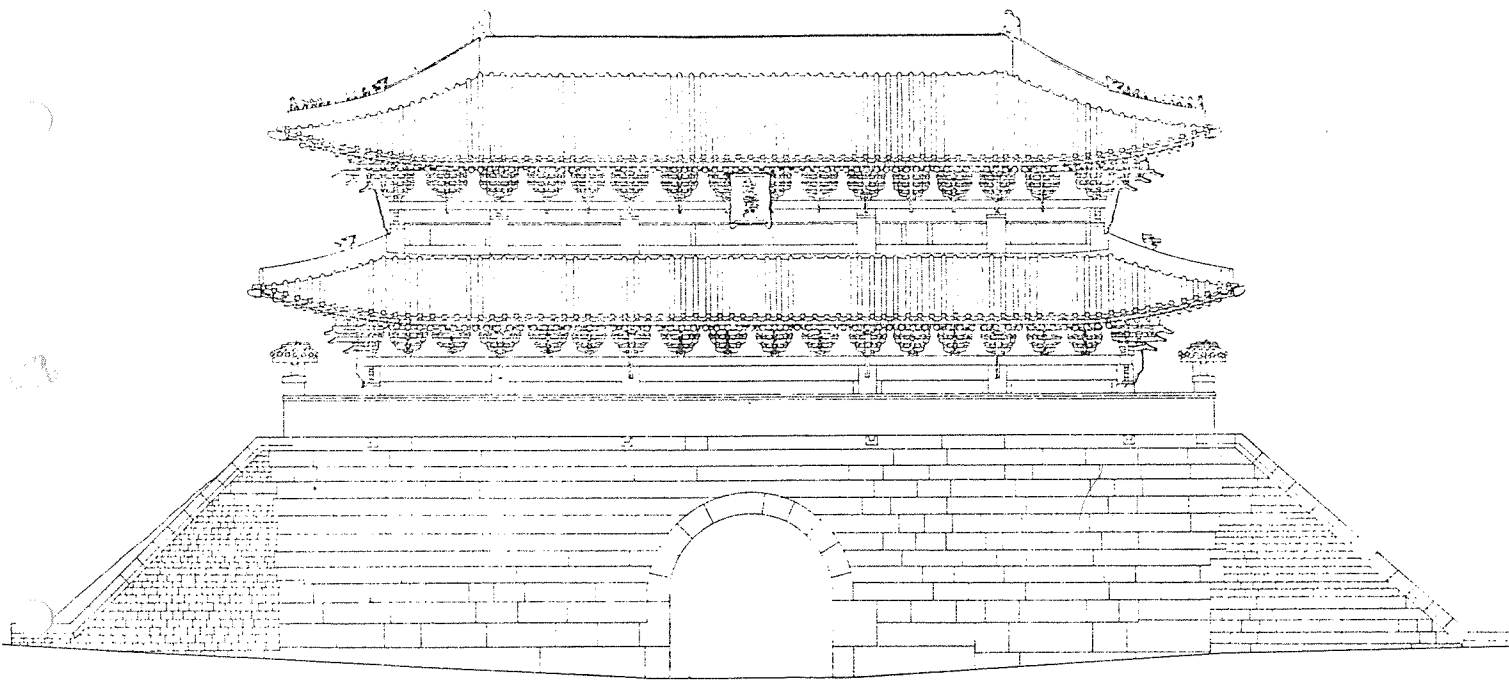
高句麗의 경우, 政治的 目的의 궁극을 비롯해 軍事目的의 성곽, 그 외에 당시의 社會相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壁畵古墳들이 이를 증명해 주며,

百濟의 경우에는 6 世紀初 日本에 佛敎를 전하고 뒤이어 6 世紀末 僧侶를 비롯해 造寺工·鑿盤博士·瓦博士·畫工 등이 渡日하여 奈良에 있던 飛鳥寺를 세우고 그밖에 日本 建築文化에 至大한 공헌을 하였다. 新羅 역시 뒤늦게 佛敎를 公認하였으나(527) 高句麗 못지않게 國家形成 과정에 精神的인 支柱의 역할을 하여 佛敎는 널리 보급되고 信奉되어 國都를 중심으로 많은 寺刹을 造成하였고 各個 建物도 뛰어난 技法에 의해 建立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三國時代의 木造遺構가 단 하나도 實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高句麗의 建築을 推定할 수 있는 가장 좋은 資料는 壁畵古墳에 그려진 당시의 城廓配置圖와 建築圖이며, 實物로는 古墳自體의 構造物 내용이다. 寺刹의 경우에는 地上遺構가 아닌 建物址의 基壇石이나 礎石들로 伽藍의 配置形式과 建物平面을 일부나마 알 수 있고 宮殿建築도 建物址만으로 推定配置復原이 가능한 실정에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壁畵古墳은 平壤地方에서 37基, 通溝地方과 그 부근에서 14基, 모두 51基가 알려져 있는데 이중 建築史의 입장에서 특히 주목되어야 할 遺構로서는 城廓圖가 그려져 있는 遼東城塚(4 世紀

末), 藥水里古墳(5 世紀), 龍岡大塚(5 世紀), 安岳 1 號墳(6 世紀), 三室塚(5 世紀) 등이 있고, 殿閣圖가 그려진 古墳으로는 冬壽墓(357) 雙楹塚(5 世紀), 通溝12號墳(5 世紀), 八清里古墳이며 기타 古墳들에서는 기둥·栱包·台工 등의 資料를 얻을 수 있다. 寺刹遺址는 平壤 淸岩里的 廢寺址(金剛寺로 추정), 元五里 廢寺址, 그리고 推定 定陵寺址 등이 있어 高句麗의 寺刹이 어떠한 규모의 어떠한 배치였는지 대략 알 수 있다. 宮殿建築은 安鶴宮址가 高句麗 궁궐로 알려져 발굴조사 결과 宮城範圍와 殿堂·廻廊·門址 등의 配造形式이 밝혀졌고 건물수가 모두 52個棟이나 확인되었다.

百濟時代의 建築遺址로는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寺址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寺址는 扶餘의 軍守里寺址·東南里寺址·定林寺址·金剛寺址 등이며 지금도 발굴 중에 있는 益山 弥勒寺址를 들 수 있다. 宮闕址는 확실히 알려진 실예가 없고 다만 <三國史記>에 보이는 宮名과 殿閣名, 그리고 後園에 建設된 施設物 설명 등이 참고가 될 뿐이다. 古墳에서는 公州의 宋山里 所在 博築墳인 6 號墳과 武寧王陵, 陵山里的 石室墳 등이 있으며 기타의 建築資料로는 많은 瓦塼과 소수



남대문 입면도

의 石塔·靑銅塔片 등이 있다.

新羅時代의 建築資料는 역시 寺刹 遺址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으며 그 대표적인 寺址는 慶州의 皇龍寺址라 할 수 있다. 皇龍寺는 553년에 創建하고 그후 645년에 新羅三寶의 하나인 9層木塔이 완성되었는데 높이가 약 80m에 달하였다고 하므로 당시의 建築技術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新羅가 三國을 통일한 7世紀 중엽 이후 統一新羅는 唐의 文化를 흡수하면서 佛敎藝術은 한층 더 高潮되었다.

특히 景德王代에 이르러서는 각종 藝術分野가 가장 원숙하였던 황금기로, 建築活動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는 新羅가 三國을 통일 한 후 国力이 膨大해지고 太平聖代를 누렸던 배경의 底力과 三國의 技藝가 總和를 이루워 韓國化에의 美的感覺을 具形化시켰던 까닭에 있었다고 보인다. 建築에서는 技法이나 造形意識·實用數學의 應用 등이 最高度에 달하였음은 現在遺址에서 보이는 整理된 基壇이라던가 整然한 礎石群, 그리고 세련된 瓦當의 彫刻平法 등에서 찬란하였던 당시의 建築面貌를 상상할 수 있다. 또한 <三國遺事>에 의하면 王族 이하 一般民家에까지 建築制限을 하여 身分에 맞는 집을 짓도록 하고 瓦當이나 椽머리의 使用制限 및

栱包·丹青·金銀製 裝飾品 등의 사용 如否를 規制하였던 사실들을 보면 제한받지 않았던 建築의 호사스러움은 짐작되기도 남음이 있다. 伽藍配置에 있어서도 一金堂一塔式이나 三金堂一塔式의 通式에서 一金堂雙塔式으로 바뀌고 있다. 8世紀 중엽에 重創된 佛國寺만 보더라도 平地寺刹制度와는 달리 山麓을 효과있게 이용하여 自然과 人工의 조화를 무리없이 융화시키려는 전통적 韓國建築의 根本意識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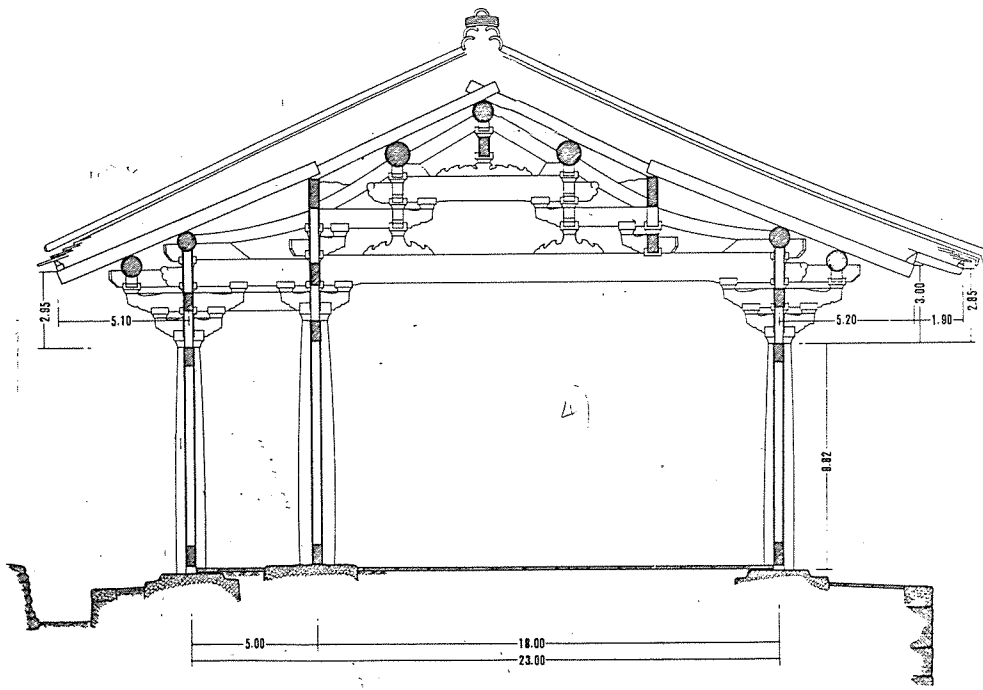
당시의 木造建築의 細部가 어떠한지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石造物인 石塔·浮屠 등에 나타난 細部와 金銅製의 小品, 그리고 1976년 실시된 慶州 안압지 出土의 檐遮, 그리고 金具 등을 통해 대략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資料들을 綜合하면 기둥에는 알맞는 엔타시스(배흘림)가 있고 柱頭는 굽에 반침이 없는 曲面의 下端를 갖는 것이고, 檐遮形은 下端曲線이 圓弧로 되고, 上面 兩側에는 栱眼을 두었음도 알 수 있다. 그러나 建物内部의 架構手法는 확실하지 않으나 遺蹟에 남아있는 礎石의 配列로 대략 알 수 있는데 內陳과 外陳이 분리되었던 것 같다. 지붕의 形式도 맞배지붕은 물론 우진각지붕·팔작지붕 등이 모두 實存하였던 것 같

다.

이러한 여러가지 資料들을 분석해 보면 現存의 高麗時代 건물들과 大差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高麗王朝에 들어와서도 初期에서 中期까지에는 建築의 樣式이 크게 변화되지 않고 統一新羅時代의 樣式 그대로 傳承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初期나 中期에 建立된 확실한 絶對年代가 밝혀진 建物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그 全貌를 알 수 없다.

高麗時代의 宮闕址로는 開城 滿月臺에 남아 있는 礎石과 石等 遺構에 의해 宮闕配置形式을 알 수 있고 記錄으로는 徐兢이 지은 <高麗圖經>의 資料로서 일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木造建築으로서 現存의 것은 安東에 있는 鳳停寺 極樂殿을 비롯해 榮州의 浮石寺 無量壽殿, 禮山의 修德寺 大雄殿, 江陵 客舍門, 黃州 成佛寺 應眞殿, 心源寺 普光殿 등 數棟이 있다. 이들 建物 중에서 高麗中期 정도의 建立으로 생각되고 樣式上으로는 統一新羅時代의 수법이라 할 수 있는 建物이 鳳停寺 極樂殿이다. 이 建物은 1972년 解体調査時 발견된 上樑文에 의해 恭愍王 12년(1363)에 屋蓋部分을 補修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建立年代는 1363년보다 100년 내지 150년 정도 앞선다고 해도 큰 잘못



鳳停寺 극락전 단면도

못은 아닐 것 같다. 이 建物は 銘文에 나타나 있는 年代도 年代이지만 建物の 細部様式을 분석해 보면 中国 建築 중 現存의 것으로 가장 오래 된 山西省 王台縣의 南禪寺 大殿(唐·782)이 보여주는 架構手法과 공통된 요소가 많아 羅唐兩國에서 8世紀頃 유행했던 建築様式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統一新羅時代의 石造物에 나타나 있는 柱頭形式은 鳳停寺 極樂殿의 것과 일치되고 있어 統一新羅時代의 建築様式이 高麗中期까지는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鳳停寺 極樂殿 이후의 建物로 浮石寺 無量壽殿, 修德寺 大雄殿 등 高麗末期의 建物들 細部様式은 역시 鳳停寺의 그것과 약간씩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이들이 高麗的인 建築物들이라고 할 수 있다.

朝鮮時代에 들어오면 初期에는 高麗時代의 建築様式들이 그대로 傳承되다가 高麗末 北方의 元나라 영향을 받아 차츰 그 人氣를 얻게된 多包式 건축물이 朝鮮期에 들어와 급속히 全國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여 寺刹의 正殿이나 궁궐의 重要建物들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多包式 건축은 柱心包式이라는 建築様式과 달리 栱包構成이 上部構造體의 集中荷重을 분산키 위한 아이디어에서 創案된 結

構法으로 柱心包式에서 기둥에만 놓여졌던 栱包를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柱上栱包와 똑같은 栱包를 올려 柱心으로만 荷重이 集中되었던 柱心包式에서 발전적으로 개량된 栱包 配置의 形式이다. 多包式 건물은 이러한 力學的인 長點 외에도 外觀을 雄壯하게 하고 内部空間을 시원스럽게 처리할 수 있는 架構形式으로 유도할 수 있었다. 14世紀의 遺構로는 서울 南大門이 그 대표적인 것이며 15世紀 건물로는 開心寺 大雄殿 등이 있다. 이들 建物들은 柱心包式의 경쾌하고 간결한 수법에 대응하는 장중하면서도 강한 힘을 내뿜는 듯한 기백을 포출해 朝鮮王朝의 새로운 建築像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했던 建築様式은 늦어도 16世紀 중엽까지는 계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16世紀末의 임진왜란으로 그 늠늠했던 14~16世紀間의 建物들은 兵火로 燒失된 것이 많아 오늘에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壬亂을 계기로 仁祖以後 건축활동은 물론 建築意識에까지도 침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建築様式에도 큰 변화를 가져와 전반적으로 作風은 纖弱해지고 細部的으로는 정돈이 흩어진 복잡성을 띄게 되었고 결국에는 翼工系樣式的 流行風潮로 突入해 들어가게까지 되었다. 이 翼工系 樣式은 柱心包

系 栱包樣式이 簡化되어 檐遮가 마침내 上·下 각 1매의 枝材로 겹쳐져 짜여지는 것으로 云곽의 彫刻은 裝飾 위주로 변화된 栱包를 갖고 있는 建築이다. 이 翼工寺 建築은 主된 建築이 아닌 從된 建物에 많이 사용되었으나 17世紀 이후 朝鮮인들이 즐겨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것은 高宗 때 再建된 景福宮의 慶會樓(1867)에서 그 실예를 찾아 볼 수 있다.

朝鮮最 末期의 建物들을 가리켜 일반적으로 裝飾的 요소만이 짙고 構造上 不合理한 浪費性向이 두드러진다고들 말하지만 가장 가깝게 우리에게 와 닿는 傳統建築의 終着駅이며 또 始發點이 될 수 있는 큰 뜻이 담겨진 建築遺産이라 생각해야 할 것이다.